

무주반딧불축제 9월 4일 개막

진안군-지역 3개 농협 ‘맞손’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 주요 볼거리·운영 계획 공유… 9월 4~12일 개최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가 개막을 20여 일 앞두고 올해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을 공개했다.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주요 볼거리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올해 축제는 ‘반디의 빛 세계를 만나다’를 주제로 무주예체문화관과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이 서식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30년을 맞아 자연이 만든 빛을 통해 사람과 사람,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생태환경축제로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반딧불축제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상설 전시 공간도 마련된다.

세계화를 지향하는 축제에 걸맞게 외국인 관람객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한다.

전용 데스크에서 영어·일본어·베트남어 등 다국어 안내를 제공하고, 반딧불이 신비탐사에는 외국인 전용 버스를 배차한다.

반딧불이 주재관에는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도입해 관람 편의를 높인다.

친환경 축제 운영을 위한 ‘3무(無) 축제’도 한층 강화한다.

일회용품과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없는 축제를 목표로 다화용기 사용 범위를 기존 축제장인 예체문화관 일원에



무주반딧불축제위원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9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열리는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주요 볼거리와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서 읍면 천원국수 식당까지 확대한다.

운영 인력과 수거 부스도 늘려 폐적한 식음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예체문화관 주차장에는 1000석 규모의 ‘글로벌 푸드존’이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1만5000원 이하의 착한 가격으로 무주식과 세계 음식, 간식,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부스도 축제 기간 운영된다.

친환경 실천 반디서약서 작성,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폐전지 집중 수거·교환, 축제장 내 텀블러 등 다화용기 사용 인증사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대표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상설화다.

반딧불이 출현 시기인 6월과 9월을 기존 축제장인 예체문화관 일원에 맞춰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하며, 제30

회 무주반딧불축제 기간에는 총 9회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하는 체류형 프로그램

‘1박 2일 생태탐험’도 9월 4일부터 총 10회 운영된다.

향토산 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반디 캠핑은 9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반딧불이 주재관은 기존 실내 운영 규모보다 약 5배 확대해 P1주차장에 조성된다.

이와 함께 반딧불이를 상징하는 또리와 아로 등 캐릭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페스티벌’을 비롯해 ‘꽃벼락 페스티벌’, 드론·낙화·불꽃놀이·레이저 등을 활용한 ‘반디 빛의 향연’, ‘반딧불이 가요제와 동요제’, 금·토요일 ‘반디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무주=손흥기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지역상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진안군은 지역농협과 손잡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과 경제 활성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은 11일 군청 상황실에서 관내 3개 농협(진안·부귀·백운, 각 조합장 김문중·김영배·김연태)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민선9기 진안군이 중점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농촌의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역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해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기가 그 핵심 내용이다.

협약으로 면 단위 하나로마트에서 월 5만 원 한도 내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관내 일반 주유소나 농자재판매점이 없는 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면의 농협 주유소와 농협 농자재판매점에서도 기본소득 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면 단위 하나로마트 결제액을 포함해 통합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지역농협 역시 본 정책에 적극 화답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걸친 긴밀한 상생과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농협은 기본소득 관련 매출액 일부를 자발적으로 출연

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확대해 지자체와 농협이 함께 그리는 상생 모델을 탄탄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진안군의 첫 농어촌 기본소득은 오는 8월 31일부터 진안군 기본소득 전용 ‘빠캉카드(시스템 운영사 ㈜마이비)’로 충전 지급되며, 즉각적인 골목 상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흥기 난동 피해 상인 돕기 나서

무주군이 무주반딧불시장 흥기 난동 사건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 상인의 생계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무주군은 판매하지 못한 채 보관 중인 피해 상인의 생산을 직접 구매하고 군민안전보원 청구 절차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와 가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일 산업경계와 직원들이 안전면에 있는 피해 상인의 자택을 찾아 배우자와 딸을 위로하고, 병동참고에 보관 중이던 오징어와 동태, 자반고등어 등 생선 6상지를 56만원 상당에 구입해냈다.

구입한 생선은 11일 무주군청 직원들의 점심 식탁에 올라 고등어구이와



오징어무침 등으로 제공됐다.

이번 지원은 갑작스러운 범죄 피해로 생업이 중단된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가 가족에게 무주군민안전보원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장수군, ‘전북 장애인 생활체육 술런·론볼대회’ 성료

장수군은 장수군장애인체육회(회장 최훈식)가 주관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 술런 및 론볼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한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내 시·군 장애인체육회 회원 간 교류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서 선수단과 관계자 등 17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쳤다.

참가자들은 술런과 론볼 종목에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한편, 서로를 격려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농촌서비스 협약 체결

진안군은 11일 면민들에게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천면 등구나무 아래 영농조합법인과 ‘농촌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농식품부가 공모한 농촌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돼 정천면 서비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업을 연계해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서비스를 주민이 주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협약 내용은 △생생 이불빨래 서비스 △반찬·과일 나눔 △교육·문화배움터 △운동·여가 프로그램이다. 또한, 진안군 마을민들기지원센터 마을기술사업단의 집수리 사업과 청소년 미디어 활동 등도 연계한다.

또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진안군 마을민들기지원센터를 지역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농촌돌봄활동 확산과 서비스 공급체계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장수군은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배움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 교육과 건강·문화·교양 분야의 학습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분야는 △노르딕워킹 △셀프 집수리 △목공예 △라인댄스 △여행영어 △사주명리 △오일파스텔 등 총 7개 과정이며, 전체 모집 인원은 77명이다.

각 프로그램은 군민회관과 장수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장계국민체육센터 등 5개 교육장에서 과정별 6명부터 20명 규모로 운영된다.

특히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과정부터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과정, 외국어와 인문·문화예술 과정까지 다양하게 구성해 수강생의 선택 폭을 넓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북의 역사

호남의 곡창지대를 지키다

완주·진안 응치전투

완주·진안 응치전투(熊峙戰鬪)는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일본군의 전라도 진출을 막기 위해 현재의 전북 완주군 소양면과 진안군 부귀면 경계인 응치(곰티재)에서 벌어진 전투이다. 1592년, 일본군은 금산을 점령한 뒤 전주로 진격하려 했다. 이에 김계군수 정담, 나주판관 이복남, 의병장 황박, 해남현감 변응정 등이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응치에서 방어를 나섰다. 응치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치열하게 저항했지만, 일본군의 대규모 공격으로 정담 등 많은 장수와 병사들이 전사했다. 전투 직후 일본군이 잠시 고개를 점령했으나, 이어진 안덕원 전투 등에서 조선군이 반격하면서 결국 일본군은 금산으로 퇴각했다. 이 전투는 호남을 방어해 전주와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전투로 평가된다. 현재 응치전적은 2022년 12월 30일 국가 사적으로 지정됐으며,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일원, 총 23만2,329㎡(완주 13만3,000㎡, 진안 9만9,300㎡) 규모다.

전주매일 캠페인

**본 배경은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